

# 나주시, '농업 분야 한 눈에' 농업페스타 연다

영산강축제 연계 농경문화체험 스마트팜·드론 전시 미래농업 선행 지역 농특산물·가공품 할인 이벤트 배깅 김치 담그기 풍성한 체험

나주시가 '2024 영산강축제'와 연계해 스마트팜, 드론 등 미래농업 분야를 한 눈에 들여다볼 수 있는 축제를 선보인다.

9일 나주시에 따르면 오는 13일 까지 영산강 정원 일원에서 '2024 나주농업페스타'를 연다.



2024 나주 영산강축제와 통합 추진되는 나주농업페스타는 우수 농특산물 판촉 홍보, 나주농업 전시 홍보, 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농경 유물전시와 미래농업(스마트팜, 드론) 전시를 통해 농업의 과거와 미래를

한 눈에 볼 수 있고 치유 텃밭정원 조성 등 몸과 마음의 힐링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다.

나주배·배즙, 한우 등 축산물 무료 시식행사와 나주배, 쌀, 잡곡, 한우 등 다양한 농특산물과 가공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할인 이벤트(한우 30%)를 진행한다.

당일 농특산물 우수 구매고객에 대한 무료 택배지원과 농특산물 구입액의 10%를 농특산물 구입 쿠폰으로 지급하는 등 다양한 이벤트를 만날 수 있다.

벼·콩 탈곡체험, 벳짚묵기, 새끼꼬기 등 농경문화체험과 드론시연 및 체험, 씨앗 캡슐찾기, 배깅 김치 담그기, 토하짓만들기 등 풍성한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농업의 과거와 미래를 한 눈에 살펴볼 수 있고 몸과 마음을 힐링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면서 "앞으로 지역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농업인과 소비자가 한데 어우러진 나주 농업의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주=김용의 기자



## 국향대전 손님맞이 준비 함평군, 대형국화 꽃탑 조성 등

함평군이 오는 18일 개막하는 '2024 대한민국 국향대전'을 앞두고 손님맞이 준비에 한창이다.

9일 함평군에 따르면 엑스포공원 주재관 앞에 꿈나무와 희망나무 조형물에 현애국화 화분 4000본을 투입해 웅장한 꽃탑을 조성하며 대전 준비에 매진하고 있다. (사진)

이번 국향대전은 국화 대형 조형물 트리, 징글벨, 마법의 성, 국향대교, 무지개 터널 등 다채로운 국화 작품이 형형색색의 꽃들로 꾸며져 관광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2024 대한민국 국향대전'은 '함평국화의 겨울이야기'를 주제로 18일부터 11월 3일까지 함평 엑스포공원과 함평읍 시가지 일원에서 열린다. 함평=신재현 기자



## 나주시, AI 특별방역대책 돌입 동수동 거점소독시설 등

지난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0건'을 달성하며 철통 방역에 성공한 나주시가 올해도 고강도 방역 조치에 나선다.

9일 나주시에 따르면 정부 AI특별방역대책기간 돌입에 따라 지난 6일 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나주를 찾아 방역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사진)

박 차관은 이날 윤병태 시장, 전남도·방역 관계자들과 함께 동수동 거점소독시설, 공산면 양계시범단지, 철새 도래지(우습제)를 차례로 방문했다.

동수동 거점소독시설(나주서부로 224)은 휴일·공휴일을 포함해 연중무휴 24시간 운영한다. 소독 차량은 하루 평균 60~70대, 특별방역대책기간에는 최대 400여대에 이르며 소독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시는 다양한 축산차량 출입에 따른 교차 오염 방지를 위해 시설 진출입로, 차량 외부뿐 아니라 내부, 운전자 신발·의복 등을 꼼꼼히 소독하고 있다.

박 차관은 "나주시는 전국 최대 오리사육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고병원성 AI 발생이 없었던 이유는 가금 농가주와 현장에서 가족방역에 힘쓰고 계신 모두의 노력이 조화롭게 더해진 결실이다"며 "올 겨울도 방역에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바란다"고 말했다.

나주=김용의 기자

## 화순 청소년문화의집, 경남 거창서 사과 따기 체험

관내 청소년 30명

화순청소년문화의집이 지난 5일 관내 청소년 30명과 함께 경남 거창을 방문해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위원들과 체험 교류, 사과 따기, 사과주스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을 성황리에 마쳤다.

9일 화순청소년문화의집에 따르면 이번 영·호남 청소년들의 교류를 통해 청소년들의 학습 스트레스를 해소 및 추억을 함께 공유하고 사과 재배 농업에 대한 이해 증진 및 팀워크와 협동의 중요성을 배우는 기회를 제공했다.

이날 프로그램은 경남 거창군 사랑방 체험 휴양마을을 방문해 거창군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위원회 위원과 만남의 시간을 가졌고 과수원을 방문해 함께 사과 따기 체험 등을 펼쳤다.

이선화 화순군 가정활력과장은 "앞으로도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체험 및 지역 간 청소년들이 문화교류를 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화순=김선종 기자



화순 지역 청소년 30명이 경남 거창을 방문해 사과 따기 체험을 하고 있다.

화순청소년문화의집 제공



## 담양군, 보건진료소 활성화 논의 공무원 의견 공유·애로사항 청취

담양군은 지난 7일 보건소장과 보건진료소 전담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건진료소 운영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사진)

군에는 보건진료소 11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병·의원인 없는 마을에 위치해 일차진료 및 통합적인 보건서비스를 제공하며 군민의 건강을 지키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보건진료소 운영 상황 및 우수사례 결과 보고를 토대로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들과 의견을 공유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보건진료소 운영의 내실을 다지기 위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참석자들은 의료사각지대 해소와 찾아가는 주민건강지킴이 사업, 장기요양재택의료사업 등 향촌복지사업을 추진하며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보건진료소의 활성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담양=신재현 기자

## 영광군, 하반기 귀농·귀촌인 영농기초 기술교육생 모집

영광군은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2024년 하반기 귀농·귀촌인 영농기초 기술교육'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교육은 22일부터 11월 20일까지 매주 2회(화·목요일), 총 10회에 걸쳐 4시간 동안 농업기술센터 3층 강의실에서 진행된다. 교육생 모집은 17일까지 10일간 진행되며 모집 인원은 총 40명이다. 모집 인원이 40명을 초과할 경우 최근 3년 이내 동일 과정 수료자는 제외된다.

이번 교육은 귀농·귀촌인들이 농촌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영농기술과 농업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영광군에 거주하는 귀농·귀촌인 및 신규 농업인 또는 귀농귀촌 희망자 누구든 신청 가능하며 교육신청서는 영광군·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영광군농업기술센터에 방문하여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귀농지원팀(061-350-4993)으로 문의하면 된다. 영광=김도윤 기자

## 담양군, 수확철 농기계 안전수칙 준수 당부

작동상태 등 사전 점검

담양군은 최근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 대책회의를 열어 가을 수확 시기 농기계 작업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고 9일 밝혔다.

행정안전부의 재난연감에 따르면 최근 3년(2020-2022)간 10월이 159건으로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확기인 9월부터 11월까지의 전체 사고의 29.7%가 집중됐다.

사고 유형별로 보면 농기계 작업 중 기

임 사고가 35%로 가장 많았고 농기계 전복 또는 전도가 28%, 교통사고가 20% 순으로 군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농기계 안전 수칙을 홍보하고 있다.

농기계 작업 전에 작동상태 등을 사전 점검해 이상이 있으면 즉시 정비하고 야간에 운행할 때는 반드시 등화 장치를 켜고 야간 작업 및 이동 시에는 비상등을 켜고 운행해야 한다.

농기계 작업 시 소매나 옷자락 등 농기계에 말려들거나 감겨 끼이지 않도록 작업복은 소매 끝단이 묶인 것을 착용하고 장갑도 끼지 않는 것이 좋다.

담양=신재현 기자

## 화순군, 벼 경영안정대책비 신청... 신규 벼 경작 농업인

화순군은 2024년에 신규로 벼 경작을 시작한 농업인 및 벼 경영체 등록한 농가들을 대상으로 벼 경영안정대책비 신청을 25일까지 읍면에서 방문·접수 중이라고 9일 밝혔다.

쌀 시장개방과 빈번한 재해 발생 등으로 어려운 벼 농가의 소득 안정을 위해 시행되는 벼 경영안정대책비 지원사업은 해당연도 기준 도내에 계속해서 주소를 두고 도내 농지에서 직접 벼를 재배하여

쌀을 생산한 농업인,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실제 벼 재배가 확인된 필지에 지급되는 소득보전 직불금이다.

농가별 2ha 한도로 경작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이 원칙이고 2024년 벼 재배대신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참여 농지 및 벼 재배 면적 감축 협약 가입 농지는 예외적으로 지원하지만 공무원 및 농업 외 종합소득이 연간 3700만원 이상인 자, 0.1ha(300평) 미만 벼 재배 농가는 지원 대

상에서 제외된다.

올해부터 도 일괄 모집을 통해 행정효율성을 제고시키고자 신청접수 및 지급기간을 통일했으며 신청·접수 원칙이기 때문에 반드시 신청해야 지급된다. 따라서 2024년에 신규로 벼를 재배하거나 경영체 등록을 한 농가들은 반드시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서를 작성해야 올해 지급대상자로 선정된다. 향후 신청접수 및 지급 요건 검증을 거쳐 연말에 벼 경영안정대책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화순=김선종 기자